

전남 근로정신대 세 할머니 모진 삶 담은 자서전 나온다

함께하는 시민모임 두달간 모금 캠페인
끌려간 경위부터 법정 싸움까지 고스란히
일제 만행 고발·중요한 역사적 기록 남겨

일제에 의해 끌려간 강제노역을 당한 우리 지역 할머니 세분이 겪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발간을 위한 온라인 모금이 펼쳐진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전남에서 끌려간 피해자의 이야기를, 우리 지역 시민단체가 모금을 주도해 기록물로 남긴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약 두 달간 카카오톡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와 함께 '변화의시나리오'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자근로정신대'는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군수공장 등에 동원, 가혹한 강제노동을 당한 어린 소녀들이지만, 피해자들은 광복 후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를 받는 등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자서전을 준비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그동안 영화나 소설로 많이 다뤄진 반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생애를 담은 자서전 발간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서전 전문 출판사인 사회적기업 '기억의책, 꿈틀'과 함께 지난해부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양금덕(나주·90)·김성주(순천·90) 할머니, ㈜후지코시강재공업 회사로 동원된 김정주(순천·92) 할머니를 각각 만나 그동안의 삶을

채록해 온 것이다.

자서전에는 할머니들이 일본에 강제동원 되게 된 경위, 현지에서의 강제노역 생활, 해방 후 자식들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고 살아온 모진 삶, 일본에 이어 한국 법정까지 나서 싸워 온 힘든 여정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다.

일제시대인 1944년 5월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강제 동원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은 당사자다.

미쓰비시로 동원된 김성주 할머니의 여동생인 김정주 할머니는 순천남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1945년 2월께 도야마에 위치한 후지코시강재공업 군수공장으로 동원됐다.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13년 다시 소송에 나서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자서전은 미쓰비시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편, 언니는 미쓰비시로 동생은 후지코시로 동원된 김성주·김정주 할머니 편 등 두 권이 제작될 예정이다.

모금 목표액은 1000만원으로 '공익변호사와함께 하는동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등이 함께 힘을 보탬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서전은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한편, 명예회복 투쟁에 피해자들의 고난에 찬 역정을 실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는 현재 총 20명(광주 9명, 전남11명)이 생존해 있지만, 이번 자서전의 주인공인 할머니들은 그동안 일본소송과 한국소송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인물들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해자 할머니들도 꾸준히 구술을 받아왔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모두의 자서전을 준비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힘나는 예술여행' 순회 전시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를 전남대병원 로비에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15m길이의 '크로스오버 소녀' 작품이 전시돼 있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치유와 휴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빛고를 전남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9개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개최하는 '힘나는 예술여행' 특별순회전시이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여대·초당대·남부대도 등록금 감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감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여대는 12일 올 1학기 등록금의 11%를 특별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여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장학금

지급대상과 기준, 방식을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12일 대학본관 2층 회의실에서 총학생회와 체결했다. 특별장학금은 재학생 1인당 최대 41만 1000원이 지급되며, 1학기에 실제 등록금을 납부한 학부 재학생으로 8월 졸업자와 3학기 등록금을 대상으로 한다. 1학기 전액 장학생과 휴학생,

자퇴생, 제적생 등은 제외된다. 초당대도 광주여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올 1학기 등록금의 10.8%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초당대는 이번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금액을 감면하는 방식이 아닌, 1학기 실제 납입한 등록금의 10.8%를 학생들 개개인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남부대도 올해 1학기 납부한 등록금의 10%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남구 장애인 1500여명 복지혜택 찾아줬다

1만 1311명 권리구제 발굴 조사

광주시 남구가 모든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지원 실태를 조사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1500여 명의 혜택을 찾아줬다.

남구는 12일 "관내 등록 장애인 1만 131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서비스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 장애인 1578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남구 등록 장애인의 14% 가량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장애 재판정 대상자, 정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가능자, 장애인 의료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등 15가지 서비스 분야였다.

조사 결과 각종 서비스 누락자 및 서비스 지원 금액 총액은 1578명에 약 3356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은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 만료로 임박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가 많았다.

우선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두 항목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까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37명을 발굴했으며, 이들은 1인당 최대 1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가지 사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이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을 넣어 카드를 발급받는 데,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카드 재발급에 소요 기간이 필요한데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불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384명이 만료 전 사전 신청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주요 보직 15명 인사 정책국장 정재철·교육국장 위경중

전남도교육청이 12일 정책국장과 교육국장을 새로운 인물로 발탁하는 등 주요 보직자 1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도 교육청 정책국장에는 정재철 부교육장이, 교육국장에는 위경중 중등교육과장이 각각 임용됐다.

또 혁신교육과장에 범미경 정책기획과 정책평가팀장, 중등교육과장에 박경희 화순동면중 교장, 전남교육연수원장에 나영숙 창평중 교장, 전남유아교육진흥원장에 김진 유초등교육과 유아교육팀장을 각각 임용했다.

이 밖에 김갑수 목포고 교장을 목포교육장, 이용덕 정책국장을 순천교육장, 김철주 신안 교육지원과장을 담양교육장, 김영훈 구례동중 교장을 구례교육장, 김정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팀장을 고흥교육장, 김한관 목포영산초 교장을 보성교육장, 김란 목포 학교지원센터장을 무안교육장, 이문포 나주 교육지원과장을 진도교육장으로 각각 임용했다.

장성도 해남교육장은 지자체와의 연대·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임기를 1년 연장해 임용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학교, 고교생 대상 19~22일 온라인 진로·진학 박람회

전남대학교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2020 진로·진학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전남대는 올해 진로·진학 온라인 박람회를 오는 19일~22일까지 평일 저녁시간과 토요일에 진행하며, 온라인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해 접속 가능하도록 언택트 시대에 맞게 구성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00개의 전공마다 대학생 멘토가 나서서 전공을 상담해주고 ▲진학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이 실시간 진학 상담에 나선다. 또 ▲대입전형 안내 특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전남대 원격서비스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참가 학생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 감상평을 남기면, 우수사례를 선정해 선물을 추가로 했다.

참가 고교생들은 ▲'전공 상담'을 통해 학과의 특색과 진로 분야를 알아보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학 상담'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접수한 뒤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입시 전략을 설계할 수도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물공제조합 광주사업소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2020. 8. 1부터 독립된 지부로 승격하여 새 출발합니다.

화물공제조합
경남지부
광주사업소
(2007. 9. 1 ~)

➔

화물공제조합
광주지부
(2020. 8. 1)

- 광주지역 조합원의 자긍심 고취
- 광주지역 조합원에 대한 원활한 공제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차주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광주지부로 거듭나겠습니다."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김국상



대구화물협회 부회장 김동석



인천화물협회 부회장 심재선



대전화물협회 부회장 김기순



전남화물협회 부회장 백종기



서울화물협회 감사 신혜수



울산화물협회 감사 김명기



경기화물협회 감사 김달호



광주화물협회 이사장 김국석



경남화물협회 이사장 최희국



부산화물협회 이사장 신훈



강원화물협회 이사장 전수산



충북화물협회 이사장 민경현



충남화물협회 이사장 최이문



전북화물협회 이사장 홍복식



경북화물협회 이사장 김희국



제주화물협회 이사장 고영철



안남화물협회 이사장 강성일



세종화물협회 이사장 김명수



전국화물공제조합 이사장 서훈택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